

액티브 시니어 street dance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
이 주 영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액티브 시니어 문화 특성
	III. street dance의 문화적 위치
	IV. street dance 교육 프로그램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47561)

**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연구소 연구교수

논문투고일 : 2024.02.17

논문심사일 : 2024.02.18

계재확정일 : 2024.03.08

Basic research on development of active senior street dance education program

Lee, Joo-young · Daegu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ed a Street Dance dance education program for active seniors who are the subject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new culture and arts and collectively influence the formation of global cultural trends.

Based on the social activities and physical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active seniors, this program was divided into a physical dimension and a cultural practice dimension as factors of subjective self-style, and cultur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based on movement. In addition, in order to derive cultural interconnection with street dance culture, the convergent characteristics of street dance were studied as physicality, an individual level, and a creative community, a collective level.

Based on the various detailed elements of Street Dance, the focus was on accurately recognizing the body, such as music, moving, and poggung, to promote movement, and to activate the senses to realize their confident image. Through the Street Dance education program, active seniors are expected to be able to cultivate the 'value of different', 'communication and respect', and 'capacity to design their own lives' inherent in Street Dance, beyond contacting and understanding the recognition system of new and diverse dance culture. It is believed that Street Dance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promoting the 'self-awareness' and 'self-realization' that active seniors seek most through 'embodied style'. The unique needs of active seniors can extend beyond knowing, enjoying, and enjoying Street Dance to cultural life by pursuing the functions and essential values of Street Dance throughout life. In addition, street danc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various values are to know that there is a unique style embodied at the center of the emergence of life, including new relationships.

In the future, it is suggested that Street Dance can fully satisfy the mental, physical, and cultural needs of active seniors, who are now the new silver generation, and play a role in promoting intergenerational cultural convergence and artistic production rather than being consumed as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youth (MZ) generation in the future society.

〈key words〉 street dance, dance education program, active senior, cultural convergence, k-pop

〈주요어〉 스트리트 댄스, 무용교육 프로그램, 액티브 시니어, 문화융합, 케이팝

본 연구는 한국 street dance 발전적 토대에 액티브 시니어의 진취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와 욕구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의 문화적 특성 고찰을 통해 스트리트 댄스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를 수립하고자 한다.

스트리트 댄스는 미국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전된 거리 춤 문화로 타 무용장르와 달리 참여성, 주체성, 개별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움직임을 리드미컬하게 표현하며 소통하는 춤이다. 이러한 스트리트 댄스는 수용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음악, 패션, 랩, 그림 등 다양한 문화와 융합할 뿐만 아니라 상호 관계를 통해 대중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과거 스트리트 댄스는 클럽과 대중 매체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 특정 집단만의 향유 문화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미디어, sns, k-pop, 다큐멘터리 등 시각 중심적 콘텐츠 등을 통해 스트리트 댄스를 보다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스트리트 댄스는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접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체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댄스에 대한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화의 주체로 존재하고,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다른 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그 과정 속에서 상호소통을 추구하는 세대가 액티브 시니어이다.

액티브 시니어는 한국 대중문화 발전의 씨앗을 심은 세대이자, 한국 힙합 문화의 기틀을 닦은 세대로 새롭고 다양한 서양 문화의 유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로 문화를 누리며 성장한 세대이다. 이들은 기성적이고 보수적인 부모 세대를 존중하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고 탐색한 최초의 세대라고도 할 수 있다.

이우동(2022:24)은 대중음악 취향에 대한 20대와 50대의 상호인식 차이 연구에서 50대들이 트로트에 대한 선호도가 20대들에 비해 높았으나 k-pop음악과 아이돌 아티스트들의 인지도 및 선호도 역시 낮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는 액티브 시니어가 청년만큼 왕성한 호기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며 문화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림자적인 존재가 아닌 체화(embodied)된 실천을 통해 앞장서 문화를 창조하려는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조태선, 배나래(2016:474)는 베이비 붐 세대인 액티브 시니어 중 문화 활동 경

힘이 많을수록, 고학력일수록, 건강할수록 문화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있음을 밝히며 액티브 시니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주장하였다. 즉 액티브 시니어에게 스트리트 댄스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예술적 창구이며 자기탐색을 실천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춤을 통해 표현하고 위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존중받는 문화 집단성은 상호 소통하며 동일한 정서와 감정을 공유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스트리트 댄스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움직임을 리드미컬한 음악에 맞춰 표현하여 몰입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자신의 자아의식과 몸의 세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닌 함께 느끼고 반응하고 존중하는 수평적 상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연정(2020:82)은 초고령 사회 액티브 시니어 대상 미래 무용교육의 방향을 ‘액티브 시니어대상 무용 교육과정의 체계화’,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특성화’, ‘문화예술교육향유를 위한 공공기관의 인식 확장’, ‘액티브 시니어의 재사회화를 위한 무용교육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미래 사회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끼칠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무용 교육이 체계적이고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창조적인 문화적 경험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대중무용이나 생활체육 중심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치어리딩, 발레, 요가, 필라테스 등 레크레이션 및 재활 움직임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더욱이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스트리트 댄스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문적 접근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KDB 모형에 준하여 스트리트 댄스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창조적인 삶의 태도와 문화적 갈증을 고찰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스트리트 댄스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액티브 시니어 문화 특성

1. 경험적 주체성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역사상 가장 ‘젊은 노인’들이 새로운 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시니어 중에서도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안정적인 경제력과

여유로운 시간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사회적으로 왕성한 문화 활동과 소비 활동을 하는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 혹은 ‘액티브 시니어 세대’라 한다”(오현주, 2021:32). 2023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막내인 1963년생이 60세에 들어섰다. 베이비붐 712만명은 넷 중 셋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았고 고도성장기에 20~30대를 보낸 세대로 액티브한 삶을 즐기고 영위한다는 점에서 액티브 시니어라고도 불리운다”(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3/07/16/JSPCSYA42F-CNTCOEZYUYB2IVJ4/>).

액티브 시니어는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로 한국 경제 부흥 및 성장기에 청년기를 보내며 민주화 운동과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집단이자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첫 세대이다. “정체성은 몸에 새겨지는 것이고 몸짓에서 가장 강렬하게 표현되기 때문에”(허유미, 2019:49) 이들은 민주화, 산업화, 군사독재를 경험하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의식적 행위를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그러한 사유와 실천을 통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서양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나누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세대로 자신의 의식을 진취적으로 표현한다. “자아 정체성의 구성 요소에서 개별성 혹은 고유함과 특별함은 인간성(personality)이라고 말하는 보편적 요소와 차별화되는 것 중 하나인 특질(trait)과 관련이 있다. 개인의 성질(temperament)은 이런 특질의 모듬으로 거의 태어나자마자 관찰된다. 이러한 개인의 성질은 삶에서 정서적 반응과 지적인 일관성에 관여한다”(한혜리, 2023:89). 즉 액티브 시니어의 이러한 정체성은 자녀 세대에게 의지하거나 부양 받고자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경제력을 통해 문화, 사회, 경제 전반에서 영향을 끼치며 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고 받아드리는 개방적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타 세대들과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노화의 결과가 아닌 성공적 삶이 담겨 있는 아름다움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기성 노인 세대들과 차별점이 있다.

“이들은 20~30대의 문화를 재해석,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로도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열정적인 모습에 젊은이들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그들의 콘텐츠를 함께 즐기고 있다”(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6052090231>).

이처럼 액티브 시니어는 새롭게 변화하고 생성되는 대중문화에 거부감이 없으며 대중문화를 세련되고 진보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누리며, 공유하기도 한다. 액티브 시니어는 빠르게 변화하는 대중문화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기성 문화 사이에 존재하며 능동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태도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독특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며 사회적 참여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진

정한 자기를 위한 삶을 주체적으로 디자인 하려 한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젊은 동력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활동적인 시니어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홍동수, 2019:43).

이처럼 액티브 시니어는 건강한 몸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는 이러한 건강한 ‘몸’을 인식함에 있어서 해부학, 생리학적인 건강을 포함하여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하며 새롭게 등장되는 사회적 이슈나 문화적인 현상을 동시다발적으로 향유한다. 즉,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새로운 관계 맺기에 긍정적이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액티브 시니어의 독특한 신체이미지 인식과 집단적 정체성은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신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 춤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김도형(2019)은 댄스문화를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는 가족지지와 주변 지지에 상관없이 댄스문화를 능동적으로 즐기고 참여하고, 댄스문화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향상되고, 건강한 노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우울을 감소해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김옥희(2019:86)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참여자들의 움직임 욕구는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계승과 전수의 형식과 내용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 의미로부터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자기 인식의 과정과 결과로서 춤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춤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2. 액티브 시니어의 몸

몸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물질적 형상 또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기능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 하지만 포스트휴먼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의 몸은 위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생태, 환경, 생명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지면서 인간의 몸은 개인의 측면에서 범지구적으로 다시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역설적이게 인간의 ‘몸’의 불안정과 불완벽성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 세대의 끝과 시작점에 존재하는 액티브 시니어에게 ‘몸’은 “살아온 역사를 나타내고 그 주체적인 몸의 움직임을 보고 그 몸의 살아온 역사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그 움직임들은 세대를 거치며 시대별 사회와 문화를 알 수 있다”(서현주, 2018:64). 즉 몸은 개인의 역사를 담고 그릇이자 공간이며 삶의 변화적 과정을 몸으로 이해하고,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다름으로 체화하는 문화 공동체가 형성된다. 세계를 이루는 문화는 이질적인 형태로 존재만 하지 않고, 공존 속에서 주변 환경과 구성

원, 관념과 사고, 생활 방식의 변화, 어떠한 계기에 의해 끊임없이 다름이 발생되는데 이 다름은 문화적 갈등과 충돌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공동체가 가지는 특수한 집단적 성격 때문인데 문화는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일한 사고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내면화 하도록 하고 다른 문화 공동체와 다름의 경계가 된다. 즉, 문화란 공동체 간의 차별을 두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체화된 문화 공동체는 경험의 주체가 되어 살아있음으로 존재하고 움직임으로써 문화 창조를 실현한다. 액티브 시니어는 세계를 향해서 의식적으로 움직일 때 생생하고 다양한 층위의 체험이 내면화 될 때 창조적인 문화를 형성 할 수 있음을 몸으로 직접 느낀 세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시니어는 자기고유성을 기반으로 고정적이거나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아닌 사회적, 문화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수용하고, 창조적인 역할을 가지는 것이며 개방적인 집단 지성을 통해 세대 간 열린 상호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그들만의 정체성을 체화한다.

액티브 시니어에게 ‘몸’은 같은 시대를 산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장소이자 증거이다. 개인적 성공과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공동의 의식을 공유하고 수평적 관계 안에서 함께 정서적 감정을 나누기 때문에 생생한 감각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생생하고 감각적인 몸은 체화라는 과정을 통해 자기고유적인 스타일로 드러난다.

몸의 노화를 기존의 시니어와 다르게 ‘성공적 노화’로 받아 드리고, 몸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세대가 바로 액티브 시니어 세대이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는 유전이나 부유나 행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 내는 것이다”(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6).

오현주(2021)의 연구에서 액티브시니어가 인지하고 있는 성공적 노화란 ‘공동체 활동이나 사회봉사 활동하는 것’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성공적 노화의 가치를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 참여’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액티브 시니어는 “특히 ‘몸’을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젊음을 위해 성형이나 다이어트, 운동 등 신체를 개선시키고자 한다. 젊은 세대 못지 않게 가지고 있던 신감각을 일깨우며, 유행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최신 IT기술을 자유롭게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기존의 인도어 활동에서 아웃도어 활동을 더 선호하는 추세이며,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여가활동을 즐긴다”(김다솜, 김원택, 박현우, 2014:454).

즉 ‘몸’이 노화의 상징이자 바꿀 수 없는 현상이라고만 인식하던 기성 시니어 세대들과는 달리 액티브 시니어에게 ‘몸’은 활기찬 생명성에 기반한 움직임의 토대이자

성숙한 존재임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가 자신의 생리학적 신체가 활력을 가지고 건강을 추구하는 것만을 노화라고 인식하지 않고 세대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나누는 공동체의 활동까지도 노화로 본다는 점에서 집단적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자신의 존재가 사회, 정치, 경제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어 사회 변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여전히 하고자 한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삶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몸을 통해 적극적으로 향유하려는 욕구, 움직임을 통해 진정한 '자기'로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있음을 느끼고자 하는 것은 삶의 경험을 체화하고 자기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표현하고 존재하는 것이 액티브 시니어의 문화 공동체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III street dance의 문화적 위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저항 의식을 예술을 매개로 표현하고 세대와 성별, 지위와 계급을 초월한 수평적 관계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힙합 문화가 추구하는 정신이라면 액티브 시니어는 힙합 음악의 발전과 대중문화 산업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힙합 문화를 체화한 세대이다. 위계 질서의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액티브 시니어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가 요구 되었다.

즉 기존의 시니어과 다른 문화적 환경에 놓인 액티브 시니어는 공동의 메시지를 담은 지향적인 문화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문화의 특성을 표출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스트릿 댄스는 아카데믹 무용이나 고전적 예술이 아니라 삶의 일상적이고 특별한 경험의 사유를 통해 고정된 문화가 아닌 끊임없이 변하는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와 융합을 즐기는 과정속에서 스트릿 댄스는 한국 대중문화에서 퍼포먼스의 영역을 발전시키며 신체 예술의 융합적 특성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흑인들로부터 시작된 스트릿 댄스는 구조주의적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 제도와 폭력에 대한 의식 표출 등 억압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문화적 기호로 해석할 수 있다. 스트릿 댄스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스토리를 생성해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고 이러한 문화 정체성은 결국 대중문화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부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스트리트 댄스는 몸적(embodied) 실천을 통해 아카데미 무용이나 고전적 예술이 아니라 삶의 일상적이고 특별한 경험의 사유를 통해 집단성을 형성한다.

집단이 주체가 되는 대중문화는 심리적, 주체적 실행과 태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스트리트 댄스에서 주체적인 공동체 개념은 타인과 자신의 구별 짓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단의 독특한 동질 의식을 고취시키며 문화가 지향하고 있는 다양성과 부합한다.

스트리트 댄스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자 문화 기호로 동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필요한 것은 다양한 타인들과 자신과 다름에 대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다양화된 문화 간의 융합은 의도와 상관없이 창조적인 사회적 현상과 집단의 취향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없애는 것이다.

스트리트 댄스 공동체는 상호 존중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식만이 유일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인류학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며, 타인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 혹은 타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대안적 삶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적 다양성과 내적 다양성이 모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리트 댄스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창발적인 집단 역동성이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액티브 시니어의 독특한 집단적 정체성 및 문화 실천적 요인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트리트 댄스는 댄스 배틀, 사이퍼 등 집단 속에서 자기주도적인 춤 공유 과정을 추구하는데 이는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항상 새롭고 낯선 것을 표현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하여금 창조적 결과물을 선보이고자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발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자기'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과정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아가 파편화 되고 있는 포스트휴먼시대에서 불예측한 상황의 연속은 자신만의 차별화되고 풍요로운 페르소나(persona)를 형성하게 된다. “페르소나(Persona)란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가면을 말한다”(위키백과, <https://namu.wiki/w/%ED%8E%98%EB%A5%B4%EC%86%8C%EB%82%98>). 페르소나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또다른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진짜의 '자기' 존재를 숨기고 사회적 인격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스트리트 댄스 문화에서 페르소나는 다양한 자기를 스스로 탐색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에서 체화된 스타일을 통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구현하고, 능동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진다. 리드미컬하고 파워풀한 스트릿 댄스는 다채로운 감정과 느낌을 몸적(embodied) 측면에서 생생하게 느끼며 존중과 배려를 통한 스트릿 댄스 문화 공동체는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디자인하는 토대가 된다.

스트릿 댄스는 비단 춤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들과 융합하고 발전한 대중문화의 산물이며 액티브 시니어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집단적 정체성과도 부합한다. 새롭고 진취적인 시도와 도전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자기'개념을 확립하는 문화적 구조 및 특성과 상호 연계가 있기 때문이다.

스트릿 댄서들은 대부분 자신이 지향하는 춤의 스타일 또는 이상형, 또는 자신의 캐릭터성 등을 위해 a.k.a. 닉네임을 사용한다. A.K.A(as know as)닉네임은 '~라고도 불린다'는 뜻으로 스트릿 댄스 문화의 독특한 자아 표현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가시화한다. 닉네임을 통한 창조적인 자기 스타일 표현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생물학적인 젠더 및 지위를 초월하여 표현하고, 자발적인 수행 과정을 통해 당면해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들을 신체 중심으로 내면화 하여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순환적 구조까지 내재되어 있다.

이렇듯 다양한 자기 표현을 통해 스트릿 댄스에서 멀티 페르소나multi persona가 형성되는데 자신의 자아를 창조적으로 형성하고 독보적이고 개성적으로 형성되고 표현되는 자기 스타일로 비단 특별한 움직임이나 제스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스트릿 댄스의 정신과 삶을 바라보는 미학적 태도까지 포괄한다.

다양한 스트릿 댄스 경험은 자아 성찰과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드리며 상호작용하는 외적인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몸을 추구하게 된다. 다양한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몸'을 통한 예술적 사유는 곧 생생한 쾌감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실천적 '쾌'는 곧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스트릿 댄스에서 살아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의식대로 건강한 몸과 자아가 실존하는 것이다. 건강한 몸과 자아는 이분법적인 차원이 아닌 체화로 완성된다. 스트릿 댄스는 직접적인 표현과 다양한 방식으로 남들과는 동일시 될 수 없는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중요시 한다. 스트릿 댄스는 타인과 소통을 통해 결국은 자신을 탐구하는 과정이며 체화는 다양한 문화 공동체 안에 있는 타인을 통해 자신의 실존적 발견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러한 춤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규명되는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서적 지지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스트릿 댄스는 동질적 의식을 공동체 안에서 느끼며 자신도 몰랐던 자아를 관철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규명하는지 탐

색한다. 즉, 스트리트 댄스는 다양한 요소가 총체적으로 결합해 구성되며 문화적, 음악적, 예술적, 움직임적 측면의 아우르는 융·복합적 맥락 속에서 실천적 행위를 통해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액티브 시니어의 다양한 문화적 상호인식에 대한 욕구, 융합적 사고능력과의 맞닿는다.

IV street dance 교육 프로그램 방안

1. 프로그램 구성 요소

본 프로그램은 앞서 논의한 액티브 시니어의 체화된 경험을 통한 적극적인 실천성, 체화된 자기고유성, 문화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특성에 기초한 스트리트 댄스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적 초석을 수립하는 것으로 KDB 교육모형을 활용하여 스트리트 댄스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구조를 체계화 하였다. KDB 교육모형은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하나의 단계로 Know-Do-Be에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Drake, Burns(2004)는 학습자의 알기(Know), 하기(Do), 되기(Be)로 명명하였다”(Drake, S. M., 2013:7).

KDB 모형은 근대 전통주의 교육관에 입각한 지식 중심의 암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수업을 통해 지녀야할 지식과 가치를 내면하고 경험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함께하는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태도까지도 아우르기 때문에 스트리트 댄스에 내재된 융·복합적인 문화 다양성을 인지 할 수 있다. KDB 교육 모형을 활용한 스트리트 댄스 무용교육 프로그램 구성 요소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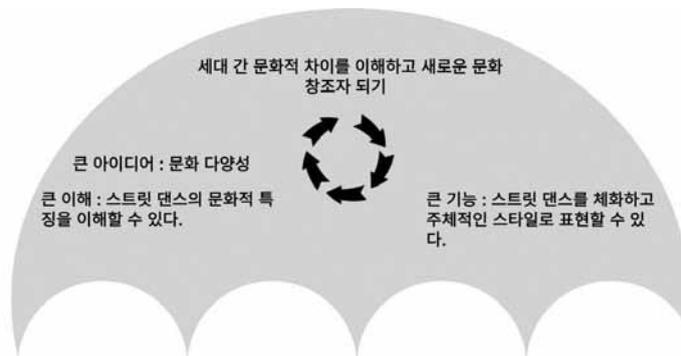


그림 1. 스트리트 댄스 교육 프로그램 KDB 우산

1) 알기(know)

본 프로그램은 주체적인 스타일을 스스로 생성해내는 창조적인 이미지 구현에 대한 몸의 신체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스트리트 댄스에서 음악은 춤의 배경음악으로서의 일차적 역할보다 더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스트리트 댄스는 음악에 내포된 리듬, 선율, 템포, 비트, 가사 등을 인지하여 음악을 듣는 음악에서 보이는 음악으로 전환시키며 온 몸을 사용한 움직임은 통해 음악과의 상호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근육과 뼈, 신체의 다양한 기관 위치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액티브 시니어의 경험적 주체성에 의한 개인은 집단적 창발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상호 관계 속에서 다양한 움직임과 개인의 표현은 존중 받는다. 지속적인 이러한 정신과 태도는 액티브 시니어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 확장된다. 폐쇄적인 문화 공동체가 아닌 개방적인 공동체성을 통해 세대를 뛰어넘는 사회적 소통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2) 하기(do)

스트리트 댄스에서 움직임은 참여자가 느끼는 그대로를 본능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움직임의 순서나 체계, 구조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유로운 느낌의 영역에서 표출된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몸의 대한 다양한 인지가 중요하며 인지된 신체의 여러 감각을 열고 다양한 외부 자극을 받아드릴 때 지향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

인지된 자기의 고유성은 스트리트 댄스를 통해 집단에서의 개방적 자세와 수용적 태도가 가능해진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존중하고 새로움을 받아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다양성을 이해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내면화 할 수 있다.

3) 되기(be)

스트리트 댄스의 융복합적인 문화적 특성인 춤의 다양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음악, 패션, 커뮤니티,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의 융복합 하며 지속적인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데 기여 할 수 있다. 스트리트 댄스는 몸이 가진 감각을 모두 여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이데올로기나 관념을 벗어나고,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추구한다. 이는 스트리트 댄스가 몸에 내재된 감각과 느낌을 믿고 풍부하게 표현하며 다채로운 움직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비단 움직임 측면이 아닌 자신의 멀티 페르소나로 확장되며 움직임, 제스처, 분위기 등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문화 창조자가 될 수 있다.

2. 프로그램 구성 방향

액티브 시니어의 몸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공동체의 특성, 자기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욕구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댄스의 독특한 움직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신체를 통한 미적 경험의 중심이 된다. 체화된 스타일은 움직임의 완벽성이나 어떠한 기술, 평가의 잣대나 기준이 아닌 있는 그대로 존중 받고 소통할 수 있는 의식적 움직임이다. 인지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적 차원인 ‘몸’의 경험으로 확대하여 신체의 분절적인 움직임을 인지하고, 다른 예술 문화와의 관계성을 알고 다양한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스트리트 댄스의 다양한 세부 요소를 토대로 음악, 무빙, 포징 등 신체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움직임을 도모하고, 감각을 활성화 하여 당당한 자신의 이미지를 구현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스트리트 댄스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리트 댄스 공동체의 문화적 개념 및 특징을 알 수 있다. - 다양한 구성요소를 경험해봄으로써 스트리트 댄스에 대한 미적 경험을 내면화할 수 있다. - 고유한 스타타일을 체화한 문화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 		
내용구성	K (Know) 알	D(Do) 함	B(Be) 됨
신체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리트 댄스 움직임 탐색하고 춤을 통한 자기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신체의 근·골격 움직임의 가동 범위를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 리스닝을 통해 스트리트 댄스의 리듬성과 박자감에 맞춰 신체적 표현을 할 수 있다. - 다양한 리듬을 세기와 빠르기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음악에 알맞은 동작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리트 댄스를 바탕으로 멀티 퍼포먼스를 긍정적으로 체화 한다.
공동체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리트 댄스 문화 공동체의 개념 집단적 특징을 알 수 있다. - 댄스 베틀, 버스킹, 잼 등의 즉흥적인 문화적 특성과 배려와 존중적 자세를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과 협업하여 스트리트 댄스 퍼포먼스를 창작하여 표현할 수 있다. - 군무 퍼포먼스를 다양하게 구성해보고 짜임새 있게 움직임을 표현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 및 대중문화에 대한 유연한 문화수용성을 체화 한다.
체화된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춤을 통한 자아표현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음악에 맞춰 원하는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리트 댄스 동작 기반 퍼포먼스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움직임을 체화 한다.

신체적 측면에서는 액티브 시니어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스트리트 댄스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신체인지 및 탐색을 통해 기초적인 스트리트 댄스의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음악에 대한 이해 및 박자에 대한 표현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미적 경험은 주체적인 멀티 페르소나를 긍정적으로 체화하여 창조적인 고유의 스타일을 스스로 생성해내는 이미지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토대가 된다.

공동체 측면에서는 스트리트 댄스가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해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스트리트 댄스의 대표적 문화라 할 수 있는 댄스배틀, 버스킹, 즉흥 잼 등의 형식을 수업에 녹여냄으로써 스트리트 댄스 퍼포먼스의 구성과 짜임새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다양한 움직임을 존중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한다.

몸을 통해 움직임의 특성과 동작의 흐름, 에너지 등을 내면화 하여 대표 동작 등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자기주도적인 즉흥적인 움직임들의 지속적인 과정을 은 자신의 존재적 이유와 더불어 스스로 자신을 창조하고, 문화를 디자인할 수 있는 현동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유롭고 상호존중적인 공동체 의식 안에서 창발될 수 있으며 자기주도적인 움직임을 체화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자 글로벌 문화 조류 형성에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스트리트 댄스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이다. 액티브 시니어는 문화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한국 힙합 문화의 태동을 이끌며 문화적 체화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한국 힙합 문화를 몸으로 체화한 세대이다. 스트리트 댄스는 다양한 대중문화 분야들과 융합하고 결합되면서 새로운 문화의 범주를 만들고 전복적 성향과 사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행적 힘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스트리트 댄스는 동시대상을 반영하고, 사회가 가진 기존의 사회 시스템 및 통념에 저항하는 정치적 성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트리트 댄스의 특성은 기성세대와 사회가 가진 고착화된 시대정신 및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내포하며 창조적인 스타일을 탄생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본 프로그램은 액티브 시니어의 문화적, 신체적, 집단적 특징을 고찰하고 스트리트 댄스문화와의 상호 연계성을 도출하여 KDB 교육 모형을 활용한 스트리트 댄스무용교육 프로그램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스트리트 댄스의 다양한 세부 요소를 토대로 음악, 무빙, 포징 등 신체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움직임을 도모하고, 감각을 활성화 하여 당당한 자신의 이미지를 구현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액티브 시니어는 스트리트 댄스무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고 다채로운 춤 문화의 인식 체계를 접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스트리트 댄스에 내재되어 있는 ‘다름의 가치’, ‘소통과 존경’, ‘스스로 삶을 디자인 하는 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체화된 스타일’을 통해 액티브 시니어의 가장 추구하는 ‘자기인식’과 ‘자기실현’을 도모하는데 스트리트 댄스가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사료된다. 액티브 시니어의 독특한 욕구는 스트리트 댄스를 알고, 즐기고 느끼며 향유하는 것을 넘어서 삶 전반으로 스트리트 댄스의 기능과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적 삶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스트리트 댄스의 문화적 특성과 다양한 가치는 새로운 관계를 비롯해 삶에 대한 창발 중심에 체화된 고유한 스타일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향후 미래사회에서 스트리트 댄스가 이제 새로운 실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액티브 시니어의 정신적, 신체적,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청소년세대의 전유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닌 세대 간 문화융합과 예술적 생산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들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 김다솜, 김원택, 박현우(2014),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를 위한 미래 커뮤니티 제안-가상현실(virtual reality)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44**, 451-460.
- 김도형(2019), “여가활동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및 우울과의 상관성 연구:댄스문화를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옥희(2019), “50+세대 무용체험 프로그램 구조와 실행 전략”, **제26회 한국무용교육학회 학술 심포지엄 학술집**, 86-100.
- 서현주(2018), “춤의 경험과 주체성: 안은미의 「몸 시리즈」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6(2)**, 57-68.
- 이우동(2022), “대중음악 취향에 대한 20대와 50대 구성원들 간 상호인식 차이 : 힙합, K팝, 트로트 장르의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연정(2021), “초고령 사회 액티브 시니어 대상 미래 무용교육의 방향성”, 국제문학&예술학회, **국제문화예술 2(2)**, 79-89.
- 오현주(2021),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인문예술교육 프로그램”,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지역복지정책 32**, 72-99.
- 조태선, 배나래(2016), “베이비부머세대의 문화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2)**, 470-475.
- 한혜리(2023), “무용에서 몸 인식과 자아의식의 관계”,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4(3)**, 81-91.
- 홍동수(2019), **비바그레이**, 서울: (주)라온아시아.
- 허유미(2019), **춤추는 세계**, 서울: 브릭스.
- Drake, S. M. (2007), *Creating standards based integrated curriculum : aligning curriculum content assessment and instruct*, 유제순, 장인한(역, 2013), **통합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조선일보(2024.01.30.검색), “‘수퍼 에이지’ 세대 [만물상]”,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3/07/16/JSPCSYA42FCNTCOEZYUY-B2IVJ4/>
- 한국경제(2024.01.30.검색) ‘당당한 황혼 '액티브 시니어'...문화콘텐츠 중심에 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6052090231>
- 나무위키 페르소나(2024.01.30.검색) (<https://namu.wiki/w/%ED%8E%98%EB%A5%B4%EC%86%8C%EB%82%98>)